Magazine ART

세상이 아름다운 Magazine 月刊 매거진아트

Cover Story
공간미학의 예술적 본질의 내면과
아름다움을 위해 조형실험을 이어온
조각가 오 상 욱

07
9 771976 767006
ISSN 1976-7676

vol.99

July. 2013 7

▲ Choonghyun Roh _ 산책 _ 2013 _ oil on canvas _ 227×162㎝ _ Courtesy of the Artist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기억의 편린 그리고 메타포

노충현 개인전 – 살풍경

2013. 6. 13(목) – 7. 14(일)
국제갤러리 1관 T. 02-735-8449

터널을 지나고나니 눈의 고장 '설국'이었다.
– 가와바다야스나리 설국 中

메타포(metaphor)를 직역하면 비유법 중 하나인 '은유'라는 뜻이다. 사물에 대해 어떤 것을 대치시켜 표현하는 것으로 시, 소설 등 문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수사법이다. 하지만 메타포를 단지 은유라고만 표기하기에 메타포는 너무나도 큰 서정성과 의미를 갖고 있다.

'기억의 편린'이라고도 부르는 메타포는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의미의 확장과 그것에서 오는 기억들의 연상,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기억의 한 조각, 그것은 일상의 작은 어떤 것에서도 저마다의 의미를 부여받고 확장되어, 보는 이의 감성을 자극한다. 즐겨 듣던 노래의 한 구절, 좋아했던 음식의 향기 역시 기억을 더듬어 그 시절의 풍경 속으로 우리를 안내 한다.

2007년 열렸던 3인전인 〈회화에 대하여〉 이후 첫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첫 개인전인 노충현의 〈살풍경 (Prosaic Landscape)〉은 그 제목에 어울리게 한강 시민 공원의 쓸쓸하고도 고요한 정경을 보여주고 있다. 한 겨울의 눈에 엎인 풍경들, 여름철 장마철 풍경, 그리고 밤과 낮의 오묘한 대비들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을 자아내며, 작가가 갖고 있는 정서와 기억에 대한 풍경의 질감을 표현하고 있다.

노충현은 홍익대학교 회화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2005년의 개인전 〈살풍경〉을 시작으로 다수의 그룹전과 개인전을 통해 〈살풍경〉, 〈자리〉, 〈실밀실〉 등의 연작을 선보이는데, 도시 속 메마른 풍경을 재현하며 상실의 정서, 공간의 장소성, 제도적 관습 등과 같은 사회적인 발언을 문학적인 정서로 표현하고 있다.
전시경력으로는 2011년 조현화랑, 2009년 사루비아 다방, 2006년 대안공간 풀, 2005년 관훈 갤러리 개인전을 비롯하여, 2012년 아르코 미술관, 2008년 부산비엔날레, 서울시립미술관, 2007년 국제갤러리 기획전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한 바 있다.

이번 전시의 주요작품 중 하나인 〈산책〉의 경우, 관객들은 이 부재의 공간 속에서 언뜻 드러나는 신원미상의 인물이 눈 덮인 풍경을 걸어가는 일상적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낯선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는 마치 스코틀랜드 출신의 화가 피터 도이그(Peter Doig, 1959-)의 비밀스런 풍경을 연상시키는데, 색채와 스타일에 있어서 평범해 보이면서도 극도로 세밀하게 조정되어 있으며, 서사에 있어 다소 일반적으로 보이지만 몽상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장면들은 작가 특유의 풍경에 대한 이해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작가는 장소가 갖는 특성을 주제로 담고 있지 않다. 일상의 모습이 낯설어 보이는 것은 아마도 작가의 어떠한 기억이 작용해서 일 것이다. 전시 제목인 살풍경은 하나의 주제로 작품을 완성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 전체 그림들의 공통분모 - 기억의 편린 - 이다.

단어 하나를 읽으면 그 전체의 내용이 유추되고 이끌어져 낼 수 있을 때가 있다. 그 작은 기억은 그의 모든 일상에 작용한다.

영화의 한 '씬'과 같은 눈 덮인 기억 속의 풍경은, 그곳은 처음부터 눈의 고장이었다고…….

_ 박일규 기자

▲Choonghyun Roh _ 물과 나무 3 _ 2013 _ oil on canvas _ 80×80㎝ _ Courtesy of the Artist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 Choonghyun Roh _ 유수지의 밤 _ 2013 _ oil on canvas _ 182×259㎝ _ Courtesy of the Artist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 Choonghyun Roh _ 편의점 _ 2013 _ oil on canvas _ 112×145.5㎝ _ Courtesy of the Artist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